『말 너머의 말들』

�� 프롤로그 – 말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말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말은 우리를 가둡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말로 배웁니다.

울음을 번역당하며 자라고,

모국어의 울타리 속에서

익숙함과 순응을 ‘말의 능력’이라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말은 언제나 무언가를 남깁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

말로 옮기지 못한 촉감,

혀끝까지 올라왔지만 터지지 못한 단어들.

그것이 바로 말 너머의 말들입니다.

나는 그 자리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말이 멈춘 자리,

말이 지나친 자리,

말이 닿지 못한 자리.

거기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지만

명백히 ‘존재하는 어떤 것’.

울컥,

탁,

툭!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감각.

나는 그 감각을 말보다 먼저 오는 말,

혹은 ‘말의 이전성(以前性)’ 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말의 정치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말은 말 자체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느 입에서 나왔는가’

‘누구를 향해 말했는가’

‘무엇을 의도했는가’ 에 따라

감각은 왜곡되고, 감정은 통제됩니다.

이 책은

‘말이 무엇인가’를 묻는 책이 아닙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은 정말 말이 아닌가?”

라는 물음을 되묻기 위한 여정입니다.

나는 이 여정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세우려 합니다.

1. 감각의 줄기 구조:

말 이전의 감각들이 어떤 ‘결’로 구조를 이루는가?

2. 감정 언어의 회복:

감정 기반 말들이 왜 주변부로 밀려났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3. 말의 정치 해체 선언:

다국적 언어, 표준어, 번역 체계의 ‘무해한 폭력성’을 어떻게 말 너머로 넘길 것인가?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도

말이 되지 않는 어떤 말 하나쯤은

떠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 너머에서 만나고 있으니까요.

**머리말 – 그냥 이런 흐름입니다**

이 책은 정해진 순서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읽어도 좋고,

중간을 펼쳤다가 덮어도 괜찮습니다.

감각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건 뭘까?’ 싶으면 그냥 멈추셔도 됩니다.

이 책은

독자를 따라가려는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말되지 않는 감정 곁에

가만히 머무는 쪽을 택한 책입니다.

그러니

읽기보다는 함께 앉아 있듯,

이해하려 하기보다, 툭 느끼듯

그냥 그 결을 따라 흘러가 주세요.

이건 읽는 책이 아니라

조용히 ‘울리고 싶은’ 책이니까요.

1부 – 감각의 구조

�� 들어가며: 말보다 먼저 울리는 것들

사람은 말하기 전에 반응합니다.

몸이 먼저 움찔하고,

가슴이 먼저 꺾이고,

눈이 먼저 젖습니다.

그 반응은 아직 말이 아니지만,

말보다 더 말답고,

말보다 더 빠르고,

말보다 더 진실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이라는 구조를 배우느라

그 말의 이전 회로들을 잊어왔습니다.

왜 울컥했는가를 묻기보다,

말이 안 되었다고 말했고,

왜 손이 떨리는가를 묻기보다,

그건 감정 조절의 실패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묻습니다.

“말보다 먼저 울린 그것,

그건 정말 말이 아닌가요?”

이제, 여섯 개의 줄기를 따라가 봅니다.

그 줄기들은 서로 닿아 있고,

그 끝에는 하나의 감각 회로가 있습니다.

말 너머의 말이 그 회로를 타고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1장. 권력의 줄기 – 말은 힘의 방향입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언제나 힘의 방향을 따라 흐릅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가,

누가 말해도 되는가,

어떤 말은 기록되고, 어떤 말은 무시되는가

그 모든 것은 말 이전에 존재하는 위치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표현은

실은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말했는데도

상대가 듣지 않았다면,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위계 구조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언어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말은 늘 무언가를 향해 기울어 있고,

감정은 상하 구조에 반응합니다.

그때 말은 도구가 아니라

위치 조정의 기제가 됩니다.

이 책에서 말의 줄기를

‘권력’으로 시작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말의 감각 구조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줄기.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의 기울기입니다.

2장. 감정 반응의 줄기 –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말보다 빠르게,

논리보다 앞서서,

감정은 언제나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듣기도 전에

손이 움찔하고,

등이 굳고,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감각의 미세한 울림들은

이미 하나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반응들을 ‘감정적이다’라고 하며

이성의 결핍, 통제력의 부족으로 치부해왔습니다.

말을 해도 되는 반응과

말해서는 안 되는 반응,

그 기준은 늘 표준화된 감정 표현 규범에 의해

측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측정되지도, 표준화되지도 않습니다.

감정은 자기만의 리듬과 속도, 회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감정 반응의 줄기는

‘말 너머의 말’ 중 가장 본능적인 신호입니다.

여기서부터

말은 단어 이전의 움직임으로 변합니다.

울컥.

턱.

훅.

툭!

이 책은 그 움직임들을

말 이전의 단어로 복원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언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3장. 표준의 줄기 – 말은 규격화를 강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표준어로 바꿔주세요.”

“그건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말을 배운다는 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하지 못할 방식부터 배운다는 뜻입니다.

표준은 편리합니다.

공통의 규약을 만들고,

의사소통의 마찰을 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표준은 위계를 만듭니다.

말을 줄 세우고, 감정을 가려내며,

존재를 균질화하는 기계로 작동합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 말은 종종

“너는 잘못된 존재예요.”로 들리곤 합니다.

표준은

말의 품질 기준이 아니라,

존재의 정당성 기준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말, 노인의 말, 장애인의 말,

지방의 말, 노동자의 말, 디지털세대의 말—

이 모든 말들이 표준이라는 이름 아래

교정당하고, 삭제되고, 보정됩니다.

하지만 나는 묻습니다.

“말을 고치는 것이 정녕 말다운 일인가요?”

“감정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그 감정은 틀린 것인가요?”

표준의 줄기는

우리 말의 줄기이자 동시에

잘리거나 누락된 가지들의 흔적입니다.

이 책은 그 잘린 가지들까지

다시 이어보려는 시도입니다.

4장. 놀이의 줄기 – 말은 몸짓입니다

말은 규칙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은 먼저, 몸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문법을 배우기 전에

의미 없는 소리를 반복하고,

입꼬리를 올리고,

뺨을 부풀리며 말의 감각을 익힙니다.

그건 소통이 아니라 놀이입니다.

‘되지도 않는 말’을 자꾸 하고,

‘이상한 말투’를 흉내 내며,

입말은 장난처럼 시작됩니다.

그 놀이 속엔

문법도, 질서도, 정답도 없습니다.

오직 되풀이, 왜곡, 뒤틀림, 튕김만 있습니다.

그게 말의 유희입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우린 그 말들을 버릇 없다, 철 없다, 말 안 된다고 지웁니다.

그리고는

표준, 격식, 호칭, 위계,

‘가르치는 말’만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말은

다시 놀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뺨을 부풀리고,

말장난을 주고받고,

웃음의 주름을 말로 번역할 수 있어야

우리는 말에 대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말은 태어나는 것이지,

암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말의 태어남을 다시 놀이처럼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P.S : 아이들의 말은 자랍니다

말을 가르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말은 자랍니다.

다만 그 말이 자라는 환경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웃기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때론 자기를 지우기 위해

‘이상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 말들이

폭력인지 놀이인지,

회피인지 창작인지,

그건 어른이 듣고, 묻고, 함께 느껴야

비로소 말다운 말이 됩니다.

그러니 가만히 두지도 말고,

억지로 고치지도 말고,

툭툭—

그 말 옆에 잠시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말 교육의 시작입니다.

5장. 신조어의 줄기 – 말은 틈에서 튑니다

말은 정해진 길만 걷지 않습니다.

말은 터지기도 하고, 비틀리기도 하며,

때로는 엉뚱한 구멍에서 툭 튑니다.

신조어는 그 틈에서 태어납니다.

말의 규칙이 너무 빽빽할 때,

감정은 틈을 찾아 흐릅니다.

“킹받네”

“빠커”

“웃안웃”

“헐잼”

“노잼”

“TMI”

“손절”

“갓생”

이 말들은 논리도 없고

표준도 없지만,

어떤 감정을 가장 빠르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말이 벽을 만나면,

감정은 다른 방향으로 튑니다.

말의 진짜 힘은 그 튀는 방향에 있습니다.

어른들은 종종

“요즘 애들 말이 왜 저래?”라고 하지만,

그건 아이들이 감정을 이상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이상하게 만든 구조를

말이 교정하려는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말은 균열에서 태어납니다.

신조어는

‘틀린 말’이 아니라

균열을 살아가는 말입니다.

이 책은

신조어를 분석하는 대신,

그 말이 튀어오른 그 자리에 서보려 합니다.

말이 된 순간보다,

말이 되기 전의 감정이 튄 그 순간에

조용히 서보려 합니다.

6장. 몸의 줄기 – 말은 반응입니다

말은 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은 언제나 몸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들어올 때

당신은 이미 등을 굳히고,

턱을 내리고,

손끝을 움찔합니다.

말보다 빠른 언어,

몸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 반응들을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라 하며

무시하거나 넘기곤 합니다.

사실은,

그게 먼저 울린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말을 배운 후에

몸으로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말은 점점

몸에서 멀어진 문장,

마음과 떨어진 구성,

머리에서만 돌아가는 회로가 되어갑니다.

진짜 말은

다시 몸에 붙어야 합니다.

말을 한다는 건

단지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울림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말로부터 어떤 반응을 느꼈습니까?”

“그 말이 몸에 와닿았습니까?”

이 질문이 가능해질 때,

말은 다시

살아 있는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 너머의 말들을

다시 꺼내 쓸 수 있게 됩니다.

2부 – 말의 여백과 시간

들어가며: 말이 멈춘 자리에서

모든 말은 끝이 아니라,

멈춤을 가집니다.

우리는 말을 마쳤을 때보다

말이 멈췄을 때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 어색한 침묵,

그 무거운 정적,

그 눌린 숨소리.

그건 말보다 더 많은 말을 담고 있는 순간입니다.

1장. 침묵은 언어인가?

우리는 종종 침묵을

말의 부재로 여깁니다.

“왜 말이 없어?”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침묵은 동의야, 아니면 거절이야?”

하지만 침묵은

말보다 더 크고,

더 밀도 높고,

때로는 더 잔인한 울림을 가집니다.

침묵은 ‘하지 않은 말’이 아닙니다.

침묵은 ‘하지 않기로 한 말’ 일 수 있고,

‘해도 소용없음을 아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들릴 자격이 없는 대상 앞에서 접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언제나 누구의 침묵인가,

무엇을 향한 침묵인가,

어떤 맥락의 침묵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침묵은 언어입니다.

단지, 그것은

말의 형식이 아니라 반응의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눈을 피함

숨 고르기

손을 움켜쥠

고개를 천천히 돌림

이 모든 것이

침묵의 문장들입니다.

이 책은

침묵을 말의 부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언어적 감각으로 다시 적습니다.

말은

침묵 안에서도 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을 들을 줄 아는 존재가

말 너머의 말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장. 몸은 기억한다 – 언어의 시간성

말은 순간에 튀어나오지만

그 말이 머무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한 마디에

몇 년을 걸고,

누군가는

수십 년 전 들었던 말을

아직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말은 끝났지만,

그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그 말이 어디를 찔렀는지,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시간은 말 위에 흘러갑니다.

말은

시간을 붙들기도 하고,

시간을 잘라내기도 하며,

때론 시간을 새로 쓰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사과는

말의 시간이 아니라

용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고백은

말한 그 순간보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말은 단순한 발화가 아닙니다.

말은 시간의 축적이고,

기억의 발효이며,

감정의 유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건

그 말 속에 담긴

지나온 시간 전체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말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몸은 그 시간을 통째로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3장. 말은 죽지 않는다 – 언어의 잔향과 수명

말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머물렀던 자리는 잔향을 남깁니다.

누군가의 말은

그날로 잊히지만,

또 누군가의 말은

십 년 후에도 그때처럼 아프고, 그때처럼 울립니다.

말의 수명은

그 말이 얼마나 오래 울렸는가로 결정됩니다.

그 울림은

말 자체보다 말이 닿은 곳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은 텍스트가 아닙니다.

말은 환경 속에 퍼지는 파장입니다.

그 파장을

어떤 마음이 받았는가,

어떤 시간이 흘렀는가,

어떤 기억 속에 새겨졌는가에 따라

말의 수명은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말은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말은 있어도, 완전히 죽는 말은 없습니다.

어떤 말은

지금도 내 안에서

매번 다른 방식으로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4장. 감정의 지층, 문화의 말

말에는 문화가 담깁니다.

아니, 말은 문화가 감정을 저장해 놓은 구조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 말이 공감으로 작동하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위협이나 무례, 혹은 무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왜 그래?”라는 말은

어떤 이에게는 관심이고 위로지만,

어떤 이에게는 간섭이고 위압입니다.

말은 감정의 코드입니다.

그 코드는 문화별로 다르게 매핑됩니다.

말은

언제나 번역되지 않는 부분을 남깁니다.

말을 번역하는 데 실패했다는 건

그 문화의 감정 회로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문화는 감정의 지층입니다.

그 지층 위에서만

말은 제대로 울리고,

감정은 말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그 말,

당신의 문화 안에서는

어떤 감정으로 울렸습니까?”

이 질문이 없다면

말은 단지 뜻의 나열일 뿐이고,

그 말은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과 말 사이의 여백,

시간과 감정의 층위,

몸과 문화의 기억을 따라

말 너머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3부 – 결론 / 선언 / 부록

�� 결론 – 이제, 말이 아니라 울림입니다

말을 해부하다가,

나는 어느 순간 말이 사라진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 자리엔 텅 빈 감정이 있었고,

조용한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배워왔습니다.

이 책은

‘무엇이 말이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말이 아니었는가’

를 묻고자 했습니다.

말은 감정의 껍질이기도 하고,

감정은 말의 잔여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말이 닿지 못한 자리에서

무엇이 먼저 반응했는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울리고 있는 그 감정 하나.

그것이 말 너머의 말입니다.

그 감정이 누군가에게

툭!

그 때

말은 다시 살아납니다.

말은 죽지 않았습니다.

말은

툭, 툭, 툭— 울림으로 살아갑니다.

�� 선언

나는

틀린 말, 이상한 말 속에서

가장 솔직한 감정을 찾을 것이다.

나는 교정 대신

조율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감정을

감정답게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말을 설계하기 보다

마음을 열고

감정을 흘리며

서로를 연결하겠다.

나는 표준에 얽매이기 보다

반응으로 답할 것이다.

나는 침묵을 존중하며

울음을 말보다 먼저 듣겠다.

나는 배운 말이 아니라,

몸에서 올라온 말을 선택하겠다.

툭! 툭 투둑...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겐...

�� 부록 1 – 다국적 언어정치: 감각의 식민화

언어는 국경을 넘습니다.

하지만, 국경 없는 언어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국적 기업, 글로벌 미디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공유’는

표준화와 식민화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 감각의 중심은 어디인가?

누가 말의 중심인가?

누가 '표준 발음', '표준 문법'을 정하는가?

어떤 감정은 보편적이고, 어떤 감정은 ‘로컬’이라 지워지는가?

다국적 언어정치는

언어를 상품처럼 포장하고,

감정을 수출입 가능한 단위로 전환하며,

결국 누가 감정의 표준을 지배할 것인가의 싸움으로 나아갑니다.

“이 감정을 느끼세요”

→ 감정의 표준화를 유도

“전 세계가 이해하는 말”

→ 특정 감정/문법 중심의 설계

“세계 시민을 위한 언어”

→ 감정의 국경 해체 + 재배열

�� 부록 2 – 감각 통제의 정치: 말의 회로를 재편하다

말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각은 통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말을 만들고, 감정을 느끼고,

울림을 수신합니다.

만약

그 감각 자체가 사전에 설계된 구조라면

말의 자유란 무엇으로 남을까요?

�� 감각의 통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1. 노출 빈도의 조절

슬픔보다 분노가 더 자주 노출될 때

→ 우리는 분노를 중심 감각으로 재편합니다.

2. 리듬의 지배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 깊은 감정은 무기력으로 변질됩니다.

3. 자극의 표준화

모든 콘텐츠가 유사한 웃음, 유사한 감동, 유사한 분노를 유도할 때

→ 우리는 감정을 정해진 형식으로만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검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로 설계입니다.

말을 막지 않더라도

감각의 회로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말은 길을 잃습니다.

❝말을 통제하지 않고도,

감각만 바꾸면 말은 길을 바꾼다.❞

�� 교육자의 위치는?

교육자는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자

감각의 회로를 함께 점검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말, 당신의 어디에 울렸습니까?”

“지금 당신의 몸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질문이 허용되는 한,

말은 살아 있습니다.

그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기 감정으로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며 이 글을 닫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울릴 수 있는 존재다.

말의 자유는

말의 감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